

yêu



6월호 Tháng 6

목차

1. 활동 내용

ute / 홍안 유치원 / 레딘친 초등학교 / 스마일 레스토랑

2. 우리의 생활

3. 개인 에세이

Ymca 가족들에게 음식 대접!

이번달 보고서는…?

- 이번달 호치민팀의 보고서는 ‘별이 없는 밤에’ 라는 제목 아래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youtube에서 호치민팀 팀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라디오인가?

원래 월별 보고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활동과 일상을 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보이는 보고서가 아닌 어떤 형식의 보고서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안산 국내훈련 때, 홍상표 간사님이 아날로그적 감성을 살려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에 공감했고, 다른 방식의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형식이 ‘라디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저희와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이 저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 에세이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제외하고, 이번 달 활동내용과 생활 내용을 목소리로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잠시 저희와 함께 호치민의 밤을 느껴보시지 않으실래요?

1. UTE

진행자 : 손현경

1. 동혁, 숫자의 신이 되다??
2. 형민이가 수업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3. 유정이가 수업에 질린 이유는?
4. 예지가 5시간의 파워공강을 활용하는 비법은?

<https://youtu.be/UmZWnUevhOE>

2. 홍안유치원

진행자 : 강유정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홍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현경)
2. 소문난 최다인원, 형민이 반의 분위기는? (형민)
3.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와 놀아주기 꿀팁! (예지)
4. 홍안 선생님들의 사랑 = 악기발휘? (동혁)

https://youtu.be/WosvKSbXs_U

3. 레딘친 초등학교

진행자 : 정예지

1. 모든 것을 예견한다! '촉민'의 등장! (형민)
2. 부르주아계의 대박 스캔들. 그 진실은? (유정)
3. "인생은 도전이다." 고난 극복의 달인 (동혁)
4. 아띠 클래스, 지속 가능성 (현경)

<https://youtu.be/tkbB3C-ABrQ>

4. 스마일 레스토랑

진행자 : 최형민

1. 스마일 레스토랑은 어떤 곳인가요? (동혁)
2. 현지 버스의 긴 이동시간, 다들 무슨 생각하고 가시는지? (유정&동혁)
3. 깜짝 고백?! 현지 봉사자에게 '좋은 감정 가지고 있다.' (유정)
4. 식당에 나온 비주얼 쇼크 음식의 정체는?! (현경)
5. '벽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벽과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연은? (예지)

<https://youtu.be/dSRpIRDwrZo>

5. 일상 - Y에 식사대접

진행자 : 신동혁

1. YMCA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했나요? (형민)
2. 그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은? (예지)
3. 현경이가 실패라 인정하지 않던? 실패한 음식은? (현경)
4.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유정)
5. 형민씨 잠오시나요?! (형민)
6.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음식으로!? (할할유정)
7. 각자의 소감

<https://youtu.be/3zatgbgNsw0>



개
인
에
세
이



Minh

숙소 가까이에 사이공 강이 흐릅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선선한 강바람 쐬러 강가 주변 카페에 갔습니다. 달달한 연유커피 한 잔 시켜 강바람 맞으며 훌쩍이니 이만한 행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 유유히 흘러갔지만 제 내면의 물결은 많은 고민들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에는 물에 떠 다니는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점점 다가오는 식물들을 보며 '아직 나한테 오려면 한참 남았구나' 싶다가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강을 바라보면 그 식물은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니다. 호치민에 온 지 3,4,5 그리고 보내고 싶지 않은 6월도 그렇게 지나가고, 지금 저는 마지막 7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유난히 힘겹게 느껴지는 달이었습니다.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서 저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많았으며,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기를 바랐으나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무척 실망스럽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니다.

라온아피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는 제 신념에서 였습니니다. 이런 제 지향점과 달리,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다'

제가 받은 피드백 모두 결국, 저와 라온아피 그리고 호치민 팀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에 대해 묻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수록 강을 바라보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월은 그렇게 맥없이 흘러갔습니니다.

하지만 7월은.. 결코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Mai

남은 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까지만 해도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다고 생각했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버거운 날도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날을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날도 있었다. 솔직히 한국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할 줄 알았던 이곳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내 생활이 문득 그리워질 때도 있었다. 벌레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많이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지겨워질 때쯤 알게된 1군의 보물같은 장소들과 새롭게 보이는 익숙한 장소들이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 또한 서로를 생각해주고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을 알게해준 팀원들이 있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엔 “봉사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가요.” 라는 말들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나에게 봉사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속에서 뿌듯함(?)을 얻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단정지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오히려 아이들의 귀여운 미소와 이모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와 환대들 속에 내 마음이 위로받고 선해짐을 느낀다. 뻔한 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어보니 이제야 그 뜻이 와닿는 중이다. 또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일상들도 특별할 건 없지만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Chi

네 번째 달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만이 남은 지금 나는 자주 한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가족이 있는 집에 도착하면,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서 갑자기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주로 챙기는 짐들은 내가 베트남에 살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물건들. 그리고 난 후 난 그 짐들을 가지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 갈 준비를 한다. 무의식이 반영된다는 꿈 속에서 내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꾸는 꿈이다. 재미있기도 하고 내가 이 곳을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즐겁기도 하고 곧 한동안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될 것을 알기에 꿈이 깨고 나면 오히려 더 슬퍼지기도 한다. 새삼 이 곳에서 네 달간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느 덥던 날 팀원들과 말없이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 곳에서 만나 다 같이 길을 걷고 버스를 타고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혼자 길을 걷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침대에서 잠이 들 것을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허 전해졌다. 처음엔 어색했고 나와 다르기만 한 것 같던 이 사람들이 어느새 나에게 정말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공감해줄 수 없는 나의, 우리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다. 우리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함께해준 코디네이터이자 내 친한 친구 Hanh까지. 6월 보고서를 쓰고 있는 7월인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감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그 날에는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날에 나의 기분은 도저히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떠나고싶지 않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베트남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이 곳에서 배운 것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매일 바란다. 간절하게.



Linh

호치민 시내 한 가운데에 팀원들과 앉아 멍하니 호치민 시내를 바라본 적이 있었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버스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매일 익숙한 광경이고, 아무렇지 않은 광경이지만 그냥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 많은 정을 붙였구나, 이곳을 많이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너무 익숙해져버려서 그냥 지나가버릴 것 같았던 6월, 7월에는 유난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익숙함이 가져다 준 지루함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은 지치기도 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는 팀원들과 먼저 다가와 안아주는 아이들에게, ute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길 잃은 나를 도와준 세옴 아저씨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느낀 작은 행복들이 내 주변에 늘 있었기에 잘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점점 활동이 끝이 보일수록,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YMCA를 떠나는 든든했던 쭈 삼촌과 안 언니, 워크캠프 일정 때문에 저번주가 마지막이 되었던 이엔 언니, 그리고 활동지에서의 모든 사람들과 안녕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 5개월 간의 시간이 떠오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아왔다.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특별할 것 없이, 좋았던 기억을 가져가면서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싶다. 매일매일 현재(present)라는 선물(present)을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Dong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것 덕분에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여러 종류의 또 여러 번의, 시작과 마지막 경험을 통해 지금 나
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번 활동의 마지막이 그리 나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무심코 지나칠 만큼 중
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지막이 되어서야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참 행복했고 소중했던 순간들이었다.
부족한 나와 웃고, 울며 함께 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A group of young people, mostly women, are in a kitchen-like setting with blue walls and white tiled lower half. They are wearing white t-shirts with 'Room Attendants of Asia' printed on the back. Some are wearing pink gloves and are washing dishes in large basins. A man in a yellow shirt is visible on the left, also working. The scene is brightly lit, and the atmosphere appears to be one of teamwork and service.

Hẹn gặp lại

다시 만나요.